

“5월 셋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5월 17일을 총회주일로 지킨다

제62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교단 산하 전 교회가 총회주일 제정 결의를 지켜 말씀을 통해, 성찬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총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 한다.

특히 총회장 김용덕 목사는 교단 총회 주일로 정한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켜 우리가 소속한 교단총회를 위해 기도를 당부하고 신의성실성을 무기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과 교단 산하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해 줄 것을 역설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헌신을 강조했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통합을 알린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안정적인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연하고 장중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 뽑고 정적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

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판이 되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주일 총회주일이 총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총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전국교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 우리 교단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결집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힘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하여 주었으며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 주기를 교단 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예배 풍경

증경총회장 이창 목사 산수연 감사예배 드려

평생 목양일념으로 갈릴리교회 섬겨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 목사(원내사진) 산수연 감사예배가 지난 12일(화)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드려져 갈릴리교회를 창립하고 평생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위로하고 삶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릴리교회 담임 정영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교단 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대표기도, 갈릴리교회 찬양대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시 90: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며 영생 얻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중심, 하나님중심의 삶을 살아가야함"을 강조하고 "평생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한 이창 목사님의 삶은 정말 값진 삶을 살아 오셨음을 감사드리고 축하해 마지않는다고 전하고 귀한 전도자의 삶"을 축복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축하순서로 이어졌다.

이창 목사의 발자취 동영상상을 관람한 뒤 축하케익

커팅, 소프라노 고예정 님의 축하, 경북지교회 증경회장 정상균 목사와 순복음안락교회 최수근 원로목사의 축하, CTS부산방송 여성합창단의 축하, 남산교회 박용주 원로목사의 권면, 오영옥 권사의 시낭송 등의 축하 순서가 이어져 이창 목사의 복음전파 일념으로 살아온 복된 인생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선물증정 시간에는 교단 정책위원회와 부산지교회, 갈릴리교회에서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증정하고 교회장립 후 평생을 헌신해 온 이창 목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 목사는 담사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먼 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신 정책위원장님을 비롯 교단 총회장 교단 임원, 회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담임 정영진 목사의 광고, 전남지교회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의 식사기도 등의 순서를 은혜기운에 마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창 목사는 1974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4월 개척예배를 드리고 평생 목회사역을 위해 헌신해 오다 1999년-2000년에는 교단 총회장으로 총회원들을 섬겼으며 2006년 12월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조용목 목사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했음을 말해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서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이 곧 범죄이며 죄악입니다. 위치와 관련된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사건기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에 관한 기록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아담의 아들 노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역정을 안팎에 철한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칠일 동안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방주를 기웃거릴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마침내 홍수가 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고,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 땅에서 코로 기식하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건조되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 더 지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계급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영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나님이 연속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먼저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안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여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는, 여리고 성의 함락과 라합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하여 기성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이들의 동태를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알리자 왕은 군사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들어닥치자 기성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 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던 날, 다른 여리고 성 주민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지만 두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에 매단 라합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라합의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 안에 있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록들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역정과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안과 밖이 근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의 차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포토뉴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갑신 목사)는 지난 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를 준비했다. 제반사항과 각종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8일(금)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특히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제6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부총회장 후보	부총회장 후보	총무 후보	서기 후보	재무 후보	회계 후보
진동몽 목사 1947년 9월 10일 생 새소망교회	김석석 목사 1949년 5월 8일 생 순복음전성교회	최형택 목사 1952년 5월 23일 생 광안순복음교회	김흥성 목사 1949년 2월 12일 생 파전순복음중앙교회	이인규 목사 1957년 3월 10일 생 아세아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1956년 3월 3일 생 의정부은혜교회	김영준 목사 1954년 3월 26일 생 갈릴리순복음교회

2015년 4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위원장 목사 조규선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목사 정의섭

이재민 구호와 지원에 적극 동참 ‘호소’

한교연, 네팔 대지진 성명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청난 재난으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전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히말라야 산간의 작은 나라 네팔을 강타해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엄청난 재난으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

시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무엇보다 네팔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곡하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구호인만큼 전 세계 각국이 초월적인 인류애를 발휘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연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이어 “한국교회도 기도와 헌금 뿐 아니라 현지 이재민 구호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교130주년 기념 다문화가정 부모 초청

몽골, 태국, 중국 등 5개국 83명의 다문화가족 참여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행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몽골, 필리핀, 베트남 1, 2진, 태국, 중국 등 5개국 83명의 다문화가족 부모가 입국해 8박 9일간의 상봉일정을 가졌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주최하고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과 세기종(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이윤재 목사) 등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30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 세계에 유래 없는 부흥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진 자로서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다.

이번 행사는 21일(화) 오전 3시55분 몽골 친정부도 입국을 시작으로 오전 9시30까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각 나라별로 초청된 가족 모두가 예정대로 입국소속을 마치고 공항에 나온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이들 부모와 다문화 가족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한 양병희 대표회장을 비롯, 각 교단 총무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입국장에서 간단한 입국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 후 8대의 버스에 나눠 탄 3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은 대관령 양떼목장을 거쳐 숙소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여장을 풀었으며, 개회예배 겸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신광수 목사(한교연 사회문화국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한철인 목사(예장 통합 이주민선교분과장)의 기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대회사, 김요셉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박광철 목사(기획위원장)가 행사취지를, 신광수 목사가 다문화가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서영 목사(합동개혁총회장), 고시영 목사(서울장신대 이사장), 나종민 실장(문화체육관광부)이 각각 축사를 전했으며, 다문화가정을 대표해 몽골 일흐제, 베트남 이승연 씨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대회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문화가정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비록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22~23일은 조식 후 숙소를 출발해 고성 통일전망대, 속초 엑스포타워, 아바이마을, 강릉 오죽헌, 경포대 등을 관광한 후 22일 이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 도착해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 개인별로 6일간 가정 방문 시간을 보낸 다문화가족과 부모들은 28일 환영식을 겸한 예배에 참석한 후 인천공항으로 출발, 각 나라로 돌아갔다.

성서공회, 북한이탈주민 위한 성경 기증

1990년부터 하나교회에 총 9,300여 부 기증

대한성서공회는 지난달 19일 하나원(경기도 안성)의 하나교회(홍분규 목사)에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성경 1,000부를 기증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약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머무는 곳이다. 이 하나원에서 가장 활성화된 종교기관이 하나교회이다.

하나교회 황 목사는 “한국교회 후원자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보내주시는 성경을 이탈주민들에게 직접 전해드리며 그 감동을 직접 보고 듣는 저로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고,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게 주님을 전하는 길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한 한 이탈주민은 성경을 들고 “저는 이곳에 와서 저의 성경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그 순간은 단순히 ‘좋다’는 감정을 넘어 평생을 꿈꿔왔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이탈주민은 “성경은 저에게 희망이자 생명이며 미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말씀

입니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습니다. 매일 매일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꼭 읽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증하는 성경을 받는 하나교회 성도들은 평생 처음으로 개인 소유의 성경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문서를 통해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북한 선교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1990년부터 북한의 선교의 분이 열릴 경우,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 동포에 100만 부 성경 보내기 운동’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 2,000부, 2014년에 6,300부(단편 성서 포함)에 이어 올해 1,000부를 포함하여 하나교회에 총 9,300여 부의 성서를 기증했다.

성서공회 관계자는 “북한에 성경 보급의 기회가 열릴 때를 기도하며 대한성서공회가 북한 동포들을 위한 100만 부의 성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의:02-2103-8861~3)



지리산선교사유적지 철거 요구 단체에 입산 허용

한국교회연론회, 기독교 무시하는 종교편향의 행태 비난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월 27일 지리산 선교사유적지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들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장 방문을 허가하였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호남지역에서 병원, 학교 복지 등으로 크게 기여한 기독교 선교사 유적지를 철거하자는 단체에 지리산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사 유적지 방문을 허락하여, 유적지 철거의 위험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이곳을 입산금지구역으로 묶어, 기독교인들의 방문도 제한하고 있고, 화염서 등 조계종 사찰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문화재 지정을 못하도록 꾀박하는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다.

환경부는 2010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교특혜 입법인 ‘자연공원법개정안’



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275억 원을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들의 신축/중축/개축/이축 등의 자금으로 지원까지 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금번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국 근대사에 공헌한 지리산선교사유적지를 철거하자는 단체에게 유적지 방문을 허용한 처사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불교의 주장에 편승한 ‘종교편향’의 행태

라고 했다.

이와관련 한국교회연론회는 논평을 내고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는 지난 2009년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리산 선교사 유적조사와 문화재적 가치연구’ 용역 조사를 하였고, 2011년에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3년에는 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보존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받아, 근대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교계가 어찌 이처럼 우월하게, 국민의 정신적 자산인 근대문화재 지정 반대에 올인하는가?

정부에서도 환경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통령 이승만의 분노’ 출판기념회

안보질서와 사회질서 확립 선언문도 채택

교계 및 애국단체들이 후원하는 ‘전국대통령 이승만의 분노’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28일(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교회 주요 기관장 및 교단 장로회장들을 비롯해 각계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전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 준비의 일환이며, 사무총장 최인식 대표의 사회로 기념식과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승만 육성 강연 형취, 조직본부장 강무영 장로의 내빈 소개 및 경과보고, 백석대학교 학장 정인환 박사의 서평과 추진위원장

전광훈 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전광훈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며, 전 세계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낸 분이다”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와 책이 보급된다면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인수 박사의 인사가 있는 후 내외빈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격려사를 전한 이강철 목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국운이 흥전문화에 처해 있던 당시 개혁 사상을 주장했던 뛰어난 정치 사상가였을 뿐 아니라, 제헌국회의 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탄생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대한민국의 국부”라며 “전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화 제작과 출판에 격려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영화제작 추진위원회는 건국사와 건국정신, 대한민국의 역사인식, 안보질서와 바른 사회질서 확립 등을 공고히 하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민족공동체의 화해, 평화통일 기도운동 전개

12월까지, 예장통합 소속 모든 교회 참여

본단 70년, 광복 70주년인 2015년을 맞아 예장통합 소속 교회들은 올해 12월까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본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번 특별기도회는 매일 첫 번째 주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나 오후에 개 교회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기도회는 1)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2)반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

일, 3)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4)북한동포, 새터민 및 탈북동포, 이산가족, 북한교회와 북한선교, 5)민족공동체 치유와 화해, 6)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경신, 7)반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교회에 큐케나일 연대 등 총 7개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진행된다.

정기지방회, 지방회장에 김기인 목사 선출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달 7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밴델교회(담임 김기인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김기인 목사의 사회, 서기 김효신 목사의 기도, 회계 정미자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가 출 6:6-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심 같이 우리를 세상의 고통, 사탄, 질병, 경제 등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두



렵고 딸림으로 영혼구원이라는 믿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흠 없는 신앙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교단과 지방회의 단합과 회원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한 후 2부 회무 처리에 들어갔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사회로 각종 보고와 인건을 처리한 다음 임원선출에 들어가 회장에 김기인 목사, 부회장에 김남순 목사, 총무에 신동숙 목사, 서기에 김효신 목사, 재무에 최정룡 목사, 회계에 정미자 목사를 선출했다.

월례회, 표재옥 목사에게 공로패 증정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 제31차 1회 월례회가 지난달 21일 11시 익산은혜와진리교회(담임 최병진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는 총무 김상운 목사의 사회, 회계 최강옥 목사의 기도, 임정에 사모(성령알곡교회)의 특송에 이어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가 행 4:32-37 말씀을 본문으로 '미움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증경회장 표재옥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의에서는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가 지난 한 해 지방회장으로 수고한 표재옥 목사에게 지방회원들의 이름으로 공로패



를 증정했다. 이어 헌법위원회의 개정안 투표와 안건들을 논의한 후 이윤석 목사의 기도로 정기월례회를 마쳤다.

모든 회무를 마친 회원들은 익산은혜와

진리교회(담임 최병진 목사)가 제공한 풍성한 식사와 차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주사랑교회, 창립2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수 목사) 소속 청주 주사랑교회(담임 신병설 목사)는 지난달 26일(주일) 오후 4시에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8명의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1부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최동순 목사의 기도, 서기 김용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이문근 목사

의 설교, 재무 김경준 목사의 헌금기도로 이어졌다.

이문근 목사는 예 4:13-17을 본문으로 하여 '이 때를 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임직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민족을 책임졌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처럼 교회와 주의 일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임직자들이 되길 권면했다.

2부 임직식은 청주 주사랑교회 담임목사인 신병설 목사의 집례로 2명의 안수집사 임직식, 3명의 시무권사 임직식 및 3명의 명예권사 취임식을 갖고, 지방회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와 유경현 목사의 교회 및 임직자를 위한 권면, 직전회장 이동수 목사의 축사, 본교회 아이노스 찬양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지방회장 김경수 목사의 축도로 임직식을 마쳤다.



가나안순복음교회, 전도사 임명 및 임직예배

충주지방회

충주지방회(회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달 24일(금)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나안순복음

교회(담임 김미자 전도사)에서 전도사 임명 및 흥인한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증경회장 김기진 목사(제전순복음양문교회)의 사회, 총무 박기선 목사(광혜원큰샘교회), 김미자 전도사

부부의 찬양에 이어 지방회장 윤병하 목사(한우리교회)가 빌2:5 말씀을 본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설교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밟고, 크고 아름답고, 뜨겁고, 위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김유남 목사(드림과나눔교회)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임직식에서는 지방회장 윤병하 목사가 김미자 전도사에게 임명장을, 김기진 치리목사가 흥인한 집사에게 안수집사패 수여 후 증경회장 정형기 목사(대소우리교회)의 권면, 증경회장 박휘배 목사(영주교회)의 축사와 정형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식을 은혜롭게 마쳤다.

모든 예식이 끝난 후 모든 참석자들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다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오경덕 목사)는 지난달 2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북울산교회(담임 오경덕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상석 목사의 기도, 이어 지방회장 오경덕 목사가 시 26:1-12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와 결단'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오 목사는 설교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물과 은혜에 대하여 놀라운 결단을 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야금 결단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첫째 항상 진리 중에 행함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성결케 해



야 하며, 둘째 입술의 말을 성별해 항상 복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며, 셋째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무 김은수 목사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월례회에 들어가 교단 정기총회를 위한 지방회의 준비상황 점검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모든 회무를 마친 지방회원들은 순복음 북울산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과와 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5월 월례회, 30년 근속패와 감사패 전달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12일(화) 오전 10시 30분 행복한교회(담임 김효인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 부회장 성선호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의 설교, 재무 지용득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진호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2부 월례회는 서기 오세준 목사의 회원 점명으로 시작하여, 이경진 목사의 총무보고와 지용득 목사의 재무보고, 박태균 목사의 회계 보고를 받은 다음 지방회원들의 교단 총회의 참여 독려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또한 이날 월례회에서는 임철규 목사에게 목회사역 30년 근속을 기념하는 30년 근속패를 전달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지방회

를 섬긴 직전회장 김장수 목사에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대만 타이베이, 핑퐁, 타이난교회서 집회인도

부산지방회 정기영 목사 15일간 선교여행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점 목사)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대만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다.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에서는 대만 현지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타이베이교회에서 세 번째 방문으로 사흘간 집회를 가졌으며 대만에서 청년사역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는 천주교회에서 지역교회 연합으로 사흘동안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타이베이 중심 지역교회 주회 십자가행진에 참가하여 많은

목회자와 교류를 나누었다.

남부도시인 타이난에서는 대만 현지 순복음교회 중 두 번째로 큰 56년 된 타이난교회에 네 번째로 방문하여 3일간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대만 최남단 지역인 핑퐁에서는 대만 최대교단인 장로교회와 12개 지역 장로교회 연합집회를 이틀 동안 인도하고 돌아왔다. 대만 장로교단에서의 집회는 총회나 연합회에서 회의로 강사를 선별하고 결정하며 집회할 교회도 그 회의에서 결정하기에 까다롭고 문턱이 높기로 소문난 교단이다.



집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을 반응으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으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지난 집회에서 한쪽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온 2명의 전신마비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으며 대만 넓이 뛰기 국가대표출신인 교회 장로가 디스크 고통을 받아오다 치유가 되는 등 수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 집회에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몇 년 동안 중풍으로 걸음을 전혀 걷지 못한 환자가 집회 중에 기도를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으며 93세 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탄 4년 동안 한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기도를 받은 후 일어나게 되었다.

지방회를 집고 온 4명의 환자들 이 지방회 없이 걷게 되었고 폐질환으로 거의 죽어가던 환자가 소생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교인들이 각색 질병과 마귀의 놀림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방문하지 못한 지역을 위해서는 올해 10월경에 다시 대만을 방문하여 집회를 가지기로 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 생명의 말씀 ■

오직 믿음으로 살라

(롬 1:16-17)



김양인 목사

· 광주지방회장
· 목양제일교회 담임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저마다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놀랍게도 동일한 믿음을 보여 줍니다. 욥은 국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상과 노아의 믿음을 관해서 말해 줍니다. 당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회개시켜 새롭게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모조리 심판해 버리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에 감염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실상은 어떠

할까요? 한국 기독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직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신자들도 많습다. 그런 점에서, 서구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배생활을 한다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고보 선생은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민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배타적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목숨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곧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

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본 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 시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고 칭찬 듣고 축복을 받을 때입니까? 대체로 그런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은혜가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축복은 고사하고 희생만을 요구할 때 우리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시련이 지속될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란 말

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비난을 받거나 정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인간편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복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신 21:23)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실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HIV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정부가 HIV의 원인도 결과,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숨기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분별한 동성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동성애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부담 등을 교육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바른길일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국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의 혼란에 빠트리려는 것은 사악하며, 이런 내정 간섭도 그쳐야 한다.

그 나라의 전통적이고, 건전한 성윤리를 인정해 주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인권보호가 됨을 잊지 말라.

동 정

CBS 사장에 한용길 장로 선임



한용길 (주)조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62세)가 CBS 제9대 사장으로 선출됐다. 재단법인 CBS는 지난 1일 재단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1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사장에 한용길 (주)조이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고교총 목회자체육대회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진 목사)가 지난 23일 총장근린체육공원에서 제2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덕양구기독교연합회와 일산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담임목회자들이 각각 갑, 을팀으로 출전해 축구, 족구, 배구, 사모발야구 등 다양한 게임으로 진행됐다.

서울노회협 대표회장 정중헌 목사



예장합동 경기노회를 비롯한 21노회가 소속된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7일 영도교회(정중헌 목사)에서 열려 대표회장으로 정중헌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대표회장 정중헌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족한 사람이 협의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섬기겠다. 특히 총회가 바르게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4차 기독교시민통일기도회



기독교시민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원순 목사)는 지난 30일 여전도회관에서 제24차 기독교시민통일기도회를 열고, 국가의 안정과 민족통일을 염원했다. 기도회는 직전회장 정재규 목사의 사회로 정서영 목사(함동개혁총회장)가 설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119통일기도운동 활성화 △북한 핵폐기 촉구 등을 요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빛나간 내정 간섭

국제민간 인권단체라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라는 압력을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우리나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성교육 표준안 연구 자료>를 문체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시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제외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 한다”는 요지를 통해, 우리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이 단체의 지나친 우리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동성애를 ‘정

상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부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잘못된 내정간섭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정서와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인권침해이며 인정 파괴이다. 성인들과 다르게,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정

소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단체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영어 머리글자로서 우리 말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부른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이다의 전염을 막고,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1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대표교문 |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 총회장 |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
- 교문 |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
- 배진기 목사(안디독교회)
-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 진동웅 목사(새소망교회)
- 임종달 목사(진주은혜와진리교회)
- 최광덕 목사(일산은혜교회)
- 이창재 목사(진부제일교회)
- 김인규 목사(은혜와평강교회)
- 표순호 목사(제주순복음교회)
- 지도교문 | 김인찬 목사(청신교회)

- 자문위원 | 최철권 목사(순복음백양교회)
- 정부용 목사(대림별빛교회)
- 김석송 목사(순복음천성교회)
-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
-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
- 강태진 목사(안동성공교회)
- 지도위원 | 김희태 목사(간현교회)
- 박명일 목사(제주국제순복음교회)
- 차갑신 목사(시흥순복음교회)
- 오승욱 목사(천안시복교회)
- 최형택 목사(광양순복음교회)
- 정석현 목사(순복음평강교회)
- 신동숙 목사(순복음임마누엘교회)

- 회장 | 신재영 목사(김천순복음교회)
- 부회장 | 김임복 목사(순복음무등교회)
- 서장 |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
-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
- 김기진 목사(제천순복음양문교회)
-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 백영자 목사(동등순복음교회)
- 김건수 목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
- 상임부총무 |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천미교회)
- 실무총무 | 신은순 목사(비순복음교회)
-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
- 표재욱 목사(성령일국교회)
- 협동총무 | 정영진 목사(부산갈렐리교회)
- 신복희 목사(순복음화평교회)
- 성기찬 목사(순복음꿈이있는교회)
- 박홍렬 목사(오성사랑교회)
-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 사무국장 | 차충열 목사(세계로교회)
- 서기 |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년교회)
- 재무 |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
- 회계 | 양은례 목사(창조교회)
- 감사 | 김종연 목사(은혜교회)
- 원 | 김정식 목사(순복음공산목양교회)
- 김용 목사(새희망교회)
- 김종문 목사(주시광순복음교회)
- 박상태 목사(로댐순복음교회)
- 신홍섭 목사(한말의밀알교회)
-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
- 위관석 목사(순복음꿈꾸는교회)
-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 심권보 목사(반석위애순복음교회)
-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에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종교 권장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항목 시정

교육부, 한국교회언론회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한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본회는 지난 달 17일 논평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런 조항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그 부당함을 알렸고, 연이어 교육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본회에 회신을 보내왔는데,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 자료를 따라 초/중등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와 같은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보호자에 의한 신앙 권고나 교육 등까지도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음을 통보해 온 것이다.

한편, 불교 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달 25일 논평을 통해,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며 탄지를 걸었으나, 이 사항은 토론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제 조항을 시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경기북지방회 온선교회 담임, 고 문오장 목사의 아들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호서대 신학박사 (Th. D)

날 때, 펼 때, 걸을 때

사 40:31

일본의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을 때 하루에 2마일씩만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마일이 1.6km이므로 이스라엘의 행진은 알레그로가 아닌 안단테와 같이 아주 느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속력이 아닌 지구력인 듯합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 속도를 염두에 두십니다. 아시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 40: 31) 하나님께서는 생의 속도에 따라, 날개 치며 올라가는 힘, 달음박질하는 힘, 그리고 걸어가는 힘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풍요로우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을 때 하루에 2마일씩만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마일이 1.6km이므로 이스라엘의 행진은 알레그로가 아닌 안단테와 같이 아주 느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은 속력이 아닌 지구력인 듯합니다.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때 속도를 염두에 두십니다. 아시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 40: 31) 하나님께서는 생의 속도에 따라, 날개 치며 올라가는 힘, 달음박질하는 힘, 그리고 걸어가는 힘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치며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풍요로우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었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달음박질하는 때’도 있습니다. 날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한편 무언가의 진전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할례의 징표가 하락되었던 시기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분명 은총의 시기였습니다. 가시적으로 대단한 무언가는 없어도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터벅터벅 걷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무거운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마저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이 시기에 갈립니다. 일관성과 지구력을 지닌 자는 통과할 것이요 중심이 흔들리고 조급한 마음을 지닌 자는 쓰러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날 때만이 아닙니다. 펼 때만이 아닙니다. 터벅터벅 걸을 때도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새 힘을 입어, 지리한 코스를 끝까지 완주(完走)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현시(獻詩)

동은 정경화 // 경북 김천 출생 / 한국크리스천문학 등단 / JOY선교회 이사 역임 / 현 한국크리스천문학협회 이사

말라위 호수에 별이 빛날 때

— 김수지 선교사에게 헌시 —

아득히 먼 곳
몽개구름, 무심히 흘러가는 곳
조그마한 땅, 어느 곳
아프리카 동남쪽
바다를 닮은 호숫가에
눈빛도 선한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있네.

말라위 호수에 별이 빛날 때
질병과 가난
퇴치하기 위한 열망 가슴에 품고
가난한 어머니 마음이 되어
오늘도 흐느끼며 기도하는 자

다 주어도 다 주어도
마냥 배고픈 영혼들
무거운 십자가
홀로 지고 가는 예수의 모습 속에
오늘도 닮아가는 당신의 그림자

김수지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간호학 박사로 이화여대 간호대학 학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프리카 말라위 간호대학 학장(선교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시(詩)로 한국 현대사를 만나다”

서울시-백석대, 세종미술관서 광복 70주년 현대시 전시회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를 시(詩)로 담아낸 전시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와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는 문화예술 교류협약 첫 사업으로 ‘광복 70주년 한국 현대시 100주년, 날개를 달다’ 현대시 전시회를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세종미술관 2관(지하1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일제 강점기 36년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질곡과 소용돌이를 견뎌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시문학으로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시예술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나라 현대시를 이끌어 온 대표시인들의 시집 초판본 중 희귀 시집을 선정, 전시하여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박영하, 김진석 등 우리나라 대표 화가들이 정지용, 김소월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을 시와 함께 전시했다. 박두진, 피천득 등 작고 시인의 육필과 김남조, 고은 등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의 생생한 육필시도 함께했다.

원로, 중진, 신진 시인 42명이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쓴 육필시와 시인들의 표정을 담은 사진을 함께 묶은 액자도 전시했으며, 특히 시인의 특집 코너에서는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김소월 시인의 삶을 담아냈다. 시인의 생가를 모형으로 복원하고, 현재 출간되어 있는 시집과 관련 발행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 시인들의 사진 전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인 ‘나도 시인’, 어린이 현대시 퍼즐, 동시 전시 및 영상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꾸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현대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7회 총회장배 테니스회



일시

2015년 5월 18일 (월)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장소

안양시청 테니스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90
☎ 031)382 - 3175

참석대상

예하성 소속 목회자, 장로 목대원생

진행

1부예배, 2부 테니스대회, 3부 오찬(중식제공)
※ 참가비 : 10,000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테니스회

회장 윤병하 목사
총무 구석희 전도사

뉴욕의 맨해튼 거리 복음전도사
지용훈 목사 초청 1일 집회

강사


지용훈 목사

담임


김남순 목사

말씀암송은 매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성령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기도를 통해 골방에서 노방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노방 전도사이며 복음전도사인 지용훈 목사님을 강사로 1일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셔서 함께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집회일시

2015년 5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혈문산 기도의집(담임 김남순 목사) 010-2415-2062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 113번지

●● 집회초청 강사

지용훈 목사는 200여 개국 400여 민족이 모여 살며 한 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모인다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 거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리의 전도자이다. 그는 적진을 향해 암송한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가던 여호사밋의 군대(대하 20:21)처럼, 영적전쟁의 선봉에 서서 성경암송기도로 무장한 전사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충성과 헌신' 다짐

연천순복음교회 임영광 목사 성역 30주년 기념 및 장로장립·명예권사·권사취임 감사예배



담임
임영광 목사
경기지 방회장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 연천 순복음교회(담임 임영광 목사)는 지난 달 26일(주일) 오후 3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장로장립, 명예권사, 권사 취임 및 담임 임영광 목사 성역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더욱 충성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광호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김병호 목사의 성경봉독, 659세대 신우회 총신성가대의 찬양, 교단 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갈 2:16-20, 5:13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30년간 연천지역복음화를 위

해 헌신해 오신 임 목사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 같은 역사는 바울이 동역자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낸 것처럼 연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바탕 되어 헌신해 온 결과인 줄로 안다"고 전하고 이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지속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연천순복음교회와 제직과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한 뒤 임직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김바울 목사의 봉헌기도, 659세대 총신중앙단의 봉헌찬양의 순으로 1부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담임 임영광 목사 집례로 명예장로, 명예권사 및 권사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직식은 임직자 호명, 서약, 안수기도, 공포, 임직패수여 순으로 이어졌으며 안수위원 임영광 목사, 엄석서 목사, 김석순 목사, 임웅재 목사, 김종연 목사, 김홍광 목사, 안수기도와 담임 임영광 목사는 임직자

모두에게 임직패를 각각 수여했다.

3부 감사와 축하 순서는 지방회 직전회장 김석순 목사와 증경회장 임웅재 목사, 9포병단 영접교회 이만수 목사의 권면, 6포병여단 군종참모 김주송 목사의 격려사,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와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 6포병단 생명교회 양만성 목사의 축사, 문기실 집사의 축가, 예물봉헌 선물증정 꽃다발증정, 박소영 권사의 감사, 담임 임영광 목사의 인사, 임선교 전도사의 광고, 증경회장 엄석서 목사의 축도로 이날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에 임직 받은 제직들은 다음과 같다. 장로장립: 이병재, 박대성, 나용배(명예) 명예권사: 김복녀, 김안순, 조정애, 강숙자, 최삼순, 김금순, 김승자 권사취임: 임옥화, 박경숙, 민정혜, 박소영

올해로 성역 30주년을 맞는 임영광 목사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최북단 민통선 인근의 마을 연천순복음교회와 6163부대 충신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며 교단 경기



설교
총회장 김용덕 목사



권면
지방회 직전회장 김석순 목사



권면
증경회장 임웅재 목사



권면
9포병단영접교회 이만수 목사



격려사
6포병단 군종참모 김주송 목사



축사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



축사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



축사
6포병단생명교회 양만성 목사



사회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



봉헌기도
회계 김바울 목사

지방회장으로 회원들을 사랑으로 아우르는 귀한 직임을 감당해 오고 있다.

486-80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6번길 031)834-2075, 3920



◀659세대 장병들로 구성된 총신중앙단의 봉헌찬양



고창기연, 제13대 회장에 이후식 목사 선출

고창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고창군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지난 6일(수) 오전 11시 순복음제일교회(담임 이후식 목사)에서 열려 제13대 회장에 이후식 목사를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부회장 이후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승만 장로(고창성북교회)의 기도, 서기 천병욱 목사(고창교회)의 계 14:1-5 성경봉독에 이어 회장 강구곤 목사(고창제일감리교회)가

새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자의 기도와 직전회장 전홍열 목사(오산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증경회장 강진호 목사의 식사기도 후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후 가진 2부 회의는 서기의 회원전령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임원보고, 사업보고 등 각종 보고를 받은 다음 임원선거에 들어가 제13

대 회장에 이후식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들을 선임했다.

신구임원 교체 후신임회장 이후식 목사의 주재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상정된 안건 토의와 기타안건을 토의했다.

한편 고창군기독교연합회는 2015년 부흥성회, 찬양의 밤 목사장로자유회, 은혜와성령충만 집회 등 고창군 복음화를 위한 연합예배, 기도회, 선교사업, 복음화를 위한 집회 구제 및 봉사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선진화

2. 대한민국 기독교화

3. 대한민국 통일

강남순복음교회(성수동)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09:00
주일 2부 예배	11:00
수요 예배	19:30
금요 예배	21:00
새벽 예배	05:30 (월~토)

강남금식기도원(청평)



기도원 예배시간 안내(매일)

오전 예배	11:00~12:30
성령대망회	15:00~16:30
저녁 예배	19:00~20:30
365철야 기도회	23:30~01:00
새벽 기도회	05:00~05:45



원장 김성광 목사

•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 연세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박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북한 민주화위원회 상임고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역임
강남순복음교회-강남금식기도원 원장목사
www.kangnam.or.kr/ksk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447 SD웨딩홀 6층 02-556-1411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010번길 58-10 031-584-1001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자,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헌신!”

전국여교역자회 제22차 정기총회 ... 김복희 목사 재선임

전국여교역자회(회장 김복희 목사) 제22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7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안양성전에서 열려 목회사역자로 여성지도자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회장에 김복희 목사를 재선임하고 임원진을 일부 개선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김복희 목사(세계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탁정신 목사(온선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이복순 목사(진리와사랑교회)의 성경봉독, 강원신학교 우현아 학생의 특송,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수 2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사람의 운명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노선을 견지하며 바른 성경관, 바른 기독관, 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맡겨진 사명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교단 총회장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의 축사, 교단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대림벨트교회)의 권면이 있었으며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교단발전 및 소수교회를 위해’, ‘여교역자회 2백여 교회 부흥과 영성을 위해’ 중경회장 이창순 목사(영주순복음교회)가 주재할 기도를 인도했다.

함정임 목사의 헌금기도 강원신학교 학생들의 헌금

송, 회장 김복희 목사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예배 후 오찬을 함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회원들간 즐거운 한때를 함께했다.

끝으로 이어진 총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신임회장에 김복희 목사(세계로교회)를 재선임하는 한편 임원진을 일부 개선했고 새로운 한 회기를 헌신해 줄 것을 격려했다.

전국여교역자회는 여성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성목회자의 리더십을 심분 발휘하여 섬세하고 포근하게 성령충만하여서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타파하는데 앞장 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축사
총회장 김용덕 목사



권면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사회
회장 김복희 목사



특별기도
중경회장 이창순 목사



대표기도
부회장 탁정신 목사



성경봉독
부회장 이복순 목사



헌금기도
세소망순복음교회 함정임 목사



강원신학교 학생들의 찬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회

전국여교역자회

조직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벨트교회



회장
김복희 목사
세계로교회



부회장
서울순복음교회
차갑선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이창순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부회장
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비전순복음교회
신은숙 목사



부회장
순복음교회
안연숙 목사



부회장
세광순복음교회
두순산 목사



부회장
세계로교회
김복희 목사



부회장
온선교회
탁정신 목사



부회장
전미사관교회
이복순 목사



부회장
순복음교회
김바울 목사



부회장
순복음교회
김효신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유석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부회장
영동순복음교회
김선희 목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2:1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목사 김복희
총무 목사 김선경

회장 김복희 목사 HP : 010-2353-9191
회비입금계좌 351-0704-3781-63(농협 김복희)

CTS, ‘2015 CTS 어린이 전도축제’ 개최

지역교회 3곳에 교회학교 부흥 위한 전도축제 지원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어린이 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교회 3곳을 선정하여 ‘2015 CTS 어린이 전도축제’를 개최 지원한다.

내달 9일, 16일, 30일에 인천 만석교회(담임목사 원종희), 수원 진흥교회(담임목사 박종권), 서울 흥은교회(담임목사 서동형)에서 각각 개최되는 ‘2015 CTS 어린이 전도축제’는 게그우먼 김선정을 비롯한 DJ-LINE 선교회, 워십댄스 팀 PK와 조수아 선교사의 복화술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회학교의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교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TS 교회협력팀 조종윤 부장은 “CTS 어린이 전도축제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CTS의 섬김과 나눔 사역의 일환으로, 이번 전도축제가 불씨가 되어 교회학교 부흥,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CTS는 교회 안에서 사리저가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교재인 <하미와 친구들>을 필두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영어동화 <Special Me>, 노래로 영어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Sing a Verse>, 주일학교 예배 콘텐츠 <KIDS WORSHIP>, 성경을 바탕으로 배우는 <창조한자교실>, 성경적 복음신앙을 양육하는 <복

음주머니를 통한 예수님의 어린이>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교사교육 및 교재보급을 진행해 현재 전국 400여 교회와 160여 해외선교지에 CTS 교회학교를 개설 및 운영하여 교회학교 부흥과 미지린교회 회복을 위해 힘써온 바 있다.

CTS 교회학교 개설문의 : (02)6333-2525.

뇌사 장기기증인을 위한 추모전시회 개최

‘Remember your love’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흘간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뇌사 장기기증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 ‘Remember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어버이날이 되니 곁에 없는 아들 생각이 더욱 나네요. 저희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저를 칭찬받게 해준 이 세상 최고의 효자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기기증인 40명의 얼굴이 담긴 추모비가 전시되며,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또한 뇌사자에게 장기를 이식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식인의 편지도 전시된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 10시 30분, 오후 2시에는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가족인 김태현, 편무성, 김매순, 박상규, 임원채, 백낙현, 최원진, 오성자, 윤주식, 장영란 씨가 참여했다.

김태현, 편무성, 김매순, 박상규, 임원채 씨는 모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로 김태현 씨의 아들故 김기석 군은 2011년 12월에, 편무성 씨의 아들故 편준범 씨는 2002년 11월에 각각 6명,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또한 김매순, 박상규 씨의 아들故 박진성 씨는 지난 2007년에, 임원채 씨의 아들故 임남규 군은 2009년에 각각 장기기증을 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의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며 평소 따뜻한 심성을 지녔던 아들을 생각해 장기기증이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또한 생면부지의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장이식인 박혜숙 씨를 비롯한 이식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 전시장을 찾았다.

평소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Donor Family’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아들이 장기기증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을 한다. 세상을 떠나서까지 나를 칭찬받게 하는 우리 아들은 진정한 효자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아들이 남기고 간 아름다운 사랑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故 박진성 씨의 어머니인 김매순 씨는 “항상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아들이 지금은 곁에 없지만,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기기증인의 유가족을 격려하고 열악한 국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아 기증인들의 가족들이 기증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장기기증 선진국처럼 장기기증인들의 숭고한 사랑이 칭찬받고, 유가족들의 결정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전시회가 진행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의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장기기증인을 기억하고, 그 가족을 예우하는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사랑의 동전밭’, 함께 나눔을 수확해요!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 통해 10 억여 원 모금

5일,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www.worldvision.or.kr)회장 양호승)은 5월 2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사랑의 동전밭’의 폐막과 함께 그 동안 동전밭에 모았던 동전수거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보성 씨가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전들을 자루에 담고 트럭에 옮기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보성 홍보대사는 네발 지진 피해 돕기를 위해 1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월드비전은 ‘사랑의 동전밭’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유치원, 학교, 교회, 기업 등을 통해 약 1백만 개의 월드비전 ‘사랑의 뽕’ 저금통을 배부했으며, 이렇게 모은 동전들을 청계광장에 마련된 대형 동전밭에 모았다. 이 금액과 4일간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부한 동전들이 합쳐져 총 10억여 원을 이뤘다. 여기에는 다양한 나눔 상품 판매로 모금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네발 지진 돕기 부스를 마련해 현장에서 모금활동도 펼쳤으며 10억 여원 중 지난 동전밭 기간 동안 모금된 금액 약 2억원은 네발의 이동센터 건립과 향후 재건복구활동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동전밭 수거활동에 참여한 월드비전 김보성 홍보대사는 “작은 동전들이지만 시민들이 다같이 마음을 모으면 네발에는 큰 사랑으로 전해질 것”이라며 “지난 4일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모인 이번 후원금이 네발에 잘 전달되어 하루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 동전밭’은 사전에 전국적으로 월드비전 ‘사랑의 뽕’ 저금통에 모은 동전과 현장참여를 통해 행사 기간 중 청계광장에 조성된 거대한 동전밭을 채우는 나눔 참여이벤트이다. 2008년 월드비전 ‘기아체험24시간’에서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 열리는 나눔행사로 해마다 월드비전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여 ‘지구촌 나눔 한마당’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기아대책, 네팔에 식량·텐트 나눠줘

신두팔촉 지역 집 잃은 250가정 텐트, 식량 분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60km 떨어진 신두팔촉 지역 시파갓 마을에서 긴급구호키트를 배부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비교적 많은 지진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카트만두에서 벗어나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두팔촉 지역 현장 파악까지 완료한 기아대책 긴급구호팀은, 지진 피해가 비교적 적어 물품 수급이 용이한 석피골지역에서 텐트와 비상식량을 마련, 30일 시파갓 주민들을 위한 키트 배분을 실시했다.

신두팔촉은 지진 이후의 여진 영향이 가장 큰 지역으로, 1천 3백여 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다. 박재면 기아봉사단원은 “시장이었던 양쪽 건물이 모두 무너져 길에서 시신과 동물 사체의 악취가 난다”고 현장 상황을

전해왔다.

28일 1차 현지 조사, 28일 2차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신두팔촉 지역 시파갓 마을은 1100가정 중 215가정이 집을 잃었다. 네팔 당국과 구호단체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지만, 손길이 미치지도 전에 마을 리더들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과 집을 잃은 가정의 리스트를 이미 확보해두었을 만큼 자립 재건 의지가 강한 마을이라고 긴급구호팀은 전해왔다. 박재면 기아봉사단원은 이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3대 요소인 텐트, 매트리스, 식량을 군인과 경찰의 도움 아래 안전하게 배분”했다고 전했다.

물품 배분 이후 산간 마을인 뽀파르 마을도 방문했다. 분광진 기아봉사단원은 “140여정이 살던 마을에 집이 온전히 남아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 150여 명 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20명이 사망했지만 2구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해왔다.

기아대책은 네발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한편, 군인, 경찰, 마을 지도자와 협력해 장기 재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네팔에서 15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재면, 분광진 기아봉사단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재건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2015 에스원 샴푸와 바디클렌저

FDA화장품원료 승인을 득한 SR-1000을 사용한 2015 신제품

천연발효 에스원 샴푸



에스원샴푸
300ml

- 에스원 천연샴푸를 사용하면 모공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양모효과가 생겨 탈모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3~10여 일)
- 모발이 굵어져 탄력과 윤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나노발효펩티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침투가 용이하고 피부트러블 등 지루성피부염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10여 일 정도)
- 악성비듬, 가려움증 등 두피가 개선되었답니다.(15일정도 소요)
- 머리카락에 도포 후 맛사지 하듯이 손가락끝을 이용해서 문지른 후 양치하시고 면도하시면서 5분 후 헹구주시면 됩니다.

하루 5분, 1주일만 사용해 보세요!

에스원 제품의 주요 성분

효모추출물, 상황버섯추출물, 어성초추출물, 자소엽추출물, 카퍼트리펩타이드-1, 데실글루코사이드검은생강추출물, 갱탄검(천연) 로즈마리에센셜오일(천연), 레몬 에센셜 오일(천연)

에스원 제품에 없는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

파라벤, 프탈레이트, 파라핀, 다이옥신, 미네랄오일, 합성색소, 마약류, 향화물.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총회 신하 단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신제품판매가격의 50%를, 개인 성도님께서는 신제품 판매가격 5만원의 40%를 할인하여 드리겠습니다.(택배비별도) 2개이상 구매하시는 분은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일정부분의 수익금은 하나님에 감사 하실만한 일에 쓰여 집니다.

천연발효 에스원 바디클렌저



바디클렌저
300ml

- 천연발효 바디클렌저는 아토피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 피부각질의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 나노발효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침투가 용이하고 피부트러블에도 매우 좋습니다.
- 바디클렌저 사용 후 촉촉한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샤워 타올에 액을 바른후 몸을 닦은 후 헹구주시면 됩니다.
- 무좀이 있으신 분은 샤워 후에 무좀약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발만 닦을 시에도 꼭 바디클렌저를 사용하시고 무좀약을 도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의 정성으로 건강한 피부를 되찾아 보세요!

언론 보도 자료

[연합뉴스 2014. 03. 05] 발모방지 천연 샴푸 에스원 뛰어난 효과로 인기!

[국제뉴스 2014. 03. 11]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발모샴푸 에스원 트리트먼트 샴푸

[이코노미뷰 2014. 3월호] SR샴푸로 탈모 고민 이젠 끝! 천만 탈모인에게 신기원 열려

[파워코리아 2014. 04. 05] 에스원비티(주) 이덕왕 대표

[스포츠투서 2014. 02. 28] Best Innovation 기업&브랜드 품질혁신부문 대상

[헤럴드경제 2014. 04. 07] 2014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 지친두피, 모발 건강하게, 탈모샴푸시장 새바람.

(주)에스원뷰티 대표전화 : 1544-2656

<http://www.s1beauty.com>

송정 소나무숲 길, 설악산 길 걸으며 심신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목회사역 감당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 회원들은 지난달 20일(월) 강릉에서 모여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먼저 말씀으로 은혜받고 합심하여 기도한 뒤 송정 소나무숲 길과 해변을 산책하며 심신을 단련했다.

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등 동우회 회원들은 4월 20일(월) 오전 11시 강릉시 송정동 영동제일교회(담임 김용덕 목사)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최형택 목사의 기도, 홍현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요1:20-23, 계2:2-5 말씀을 본문

으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종족세력 척결을 위해', '교단발전을 위해', '농어촌 소교회 부흥을 위해' WCC 및 동성애 반대를 위해 정석현 목사, 최남성 목사, 조은혜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사회자의 인도로 합심하여 모두가 성령충만 받기 위해 소리내어 뜨겁게 기도했다.

회원들은 영동제일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송정 소나무숲 길을 걸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걷기운동을 마친 후 속초시 설악동 소재 디베라153연수원으로 이동 1박 후, 오전 걷기운동 및 기도회를 가진 후 8월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5회 정기총회

|일시| 2015년 5월 25일(월)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사모들의 관심과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은품 증정)



고문 박희숙
성문교회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정희
제주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포항안디옥교회



직전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부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부회장 윤금자
목양제일교회



부회장 김영애
영동제일교회



총무 이은숙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총무 전희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협동총무 조정에
순복음약속교회



회계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부회계 오숙희
봉담밝은빛교회



서기 이강례
구로열린교회



감사 김정희
제주순복음교회



감사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김영숙 · 총무 이은숙 (010-2907-5235)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제문

김명혁 목사 // 한복합 회장, 강변교회 원로

“어린이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 아이를 때리지 말라

저는 행복하면서도 슬픔과 아픔을 지닌 어린이 시절과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1살 때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를 사랑으로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목사님이신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위해서는 평안도 목숨도 바려야 한다는 엄숙한 가르침을 많이 아닌 삶으로 체험받게 되었고 올바른 삶에 대한 의욕과 결의를 물려받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전소리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신 어머니로부터는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의 DNA를 물려받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를 귀하게 보시면서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는 주일성수와 새벽기도와 순교의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위한 한 가지 소원과 목적을 지니고 11살 때인 1948년 8월 어머니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38선을 뛰어 넘어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오던 어른들은 모두 불잡혔고 저는 갑갑한 밤에 혼자서 달려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몇 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지만 그리고 고아로서의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살았지만 주일성수와 예배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누군가를 위하여 바치고 싶은 헌신의 의욕을 지니고 준비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기 시작

했습니다.

시춘기인 중학생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살았지만 한국 교회의 무대라고 불리던 이성봉 목사님과 한국교회 의 에레미아라고 불리던 김치선 목사님과 만인의 존경을 받던 한경직 목사님 등의 진하고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자존감을 지니고 젊은 시절의 삶을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지를 생각하면서 젊은 시절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귀하게 보시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서 결국 저의 삶을 귀중한 삶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가장 좋은 학교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위를 받은 다음 귀국 후에는 평생 목회 사역과 교수 사역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마음껏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중국, 북한,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외로운 어린 아이였지만, 여러 분들께서 저를 귀중하게 보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보람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린이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시작하

면서부터 한 평생 어린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어린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린이들도 저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귀여워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했는데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이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대로 남아있고 있음을 발견하고 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에 꼭 들리곤 했는데 유치부 어린이들은 그때마다 내게 달려들어 안기고 업히고 매달리곤 했습니다. 스티커를 나누어주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주일마다 예배 후에 그저 내 방에 들어와서 한바퀴 돌다가 나가곤 했습니다.

이제라는 어린 얘기는 생후 8개월 때부터 내가 안아주면 언제나 내 품에서 한 시간 이상 쉼쉼근 잠을 자곤 했습니다. 5살 때 좀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녕하세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많이많이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항상 청결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할 말 있어요 저 나중에 크면 놀러 갈게요. ♡ ♡ ♡요 이레 올림 2004. 12. 12”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공화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따뜻하게 접근하면 어린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서 때리는 대신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펴도록 하십시오. 지나친 잔소리와 야단을 치는 대신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의 손길을 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사 설

제64차 정기총회에 거는 기대

제64차 정기총회가 5월 18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되어 새 집행부를 구성한다. 아울러 63회기 총회 임원 제1회의 헌신적인 교단발전 및 교단회합 노력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이번 총회는 새로운 총회 임원선출과 함께 지난 한 회기 동안의 교단의 제반 행정과 선교, 목회 실천, 교세 현황 등에 관해 총 점검을 하게 된다.

사랑과 믿음으로 특별한 형제애로 뭉친 우리 교단은 한국의 성경적인 교단의 중심교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자유주의·혼합주의 신학이 교계의 구석구석에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어 성도들이 심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목회와 선교 현장이다.

오늘날 온갖 신학적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성경중심주의’라는 한 개념으로 우리는 신학적 노선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시켜 가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행방하는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마3:28:29)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성령을 행방하는 행위인 것이다. 성경신학자 로이 주크는 성경행방죄는 결국 ‘주님을 부정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죄’라고 보았다.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주님을 부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용서를 받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교회 세계 본부는 WCC를 그 창립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케 하는 무리들로 간주하고 거부를 선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교회 한국교회를 표방한 무리들 가운데 저 WCC와 활동을 같이하며 깊이 가담하고 있으니 이들을 단호히 하나님의교회에서 축출하고 정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총회 성원 각인이한 결 같이 마음을 모으고 당면한 한국교회의 병통을 말끔히 치유할 수 있는 새 합의 결집을 이룩하고, 새로운 임원 선임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대 축제의 불꽃을 올려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차별 금지운동을 내세운 성적 타락 풍조나 스마트폰 과용으로 인한 청소년 선교 장애 문제 해결이나 교회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저 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목회적 대책,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전체의 신뢰추락 등과 같은 선교 현장의 병리현상들에 대해서도 광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은혜로운 성총회가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대의 징조를 깨우치는 한 마당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자!

동성에 조장 ‘귀어축제’ 막아야 한다

오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하여 부부의 날이라고도 한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6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든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01년 4월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3.12. 국회를 통과하여 모두가 기념할 날로 정해졌다.

이날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성도적 현주소를 심각하게 살피고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른바 구미식 ‘성 개방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비롯된 풍조가 독버섯처럼 자라 온 나머지 이제는 “귀어(동성에

자) 축제”니 뭐니 하면서 광란하는 성도적 타락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임을 보고 새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동과 고모라는 성도적 타락으로 의인 열이 없어 불로 발명되었음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들이 이른바 귀어 축제를 오는 6월 9일(화)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란의 ‘귀어축제’란 것을 기어코 열겠다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고 1년 1년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청조의 질서를 수호하고자 절규하고 있는 기독교계와 양심적 문화인들은 오늘의 의인임을 자부해도 좋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수호 운동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주시도록 충심어린 격려를 보낸다.

초대시

예경 정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가사문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화와 여행 외 13종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화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스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98년 KBS 전국회화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실천

문둥병자 피고름을 입으로써 빨아내고
두아들을 죽인자를 용서하고 양자삼아
주님사랑 나타내신 손목사님 사랑실천
모든일을 감사하신 살아계신 예수였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하나님
예수피로 적시어서 환처위에 앉으시어
모든환우 고치시는 능력의주 나의주님
이땅위의 모든환우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들죽인 원수라도 양자삼아 신학교육
목사로서 기쁜사랑 영혼구원 안내자로
영원무궁 그이름이 온세상에 전해져서
많은이가 주를영접 구원받게 하옵소서

남을용서 사랑실천 평온함을 주옵소서
언어폭력 통하여서 남괴롭힌 나의벗님
이시간을 감사하며 용서하고 기도하니
내친구가 아서속히 예수영접 하시게나

목 양 신 매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맛있고 맛있는 파티
C&K 출장부페
다양한 파티메뉴 C&K출장부페의 정성을 담은 파티를 선사합니다.
최고급 호텔급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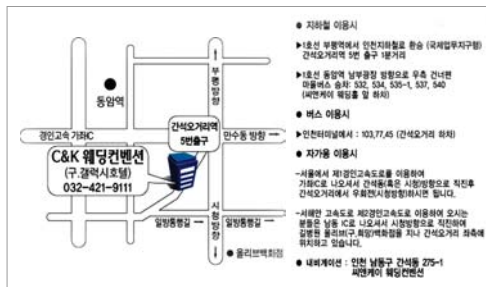
최상의 선택! 최고의 만남!

고객의 마음을 더 잘 아는 품격과 정성을 제공합니다

☀ 행사 갤러리



☀ 찾아오시는길



C&K컨벤션 대표 정 효성



대표전화 / 예약상담

☎ 032.421.9111

시애펬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75-1

삶과 신앙생활에 모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권사, 서리집사 임직예배’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권사 403명, 서리집사 509명 임직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2015년도 권사 임직, 서리집사 임명 예배가 5월 5일(화) 안양성전에서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여성집사 403명이 권사로, 남녀 성도 509명이 서리집사로 임직되었다.

임직자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수행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짐하였다.

이날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대성전에서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박점식 장로의 기도,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 담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임직식 순서로 드려졌다.

조용목 목사는 살전 1:2-3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지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복되게 하는 지원이며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자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 말씀해 주었다.

조 목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자극되고 감동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랑,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

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재림하실 때 경건하게 될 부활과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유이자 오늘 여러분이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받는 이유”라고 격려하고 앞으로 더이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조용목 목사는 임직자와 성도들로부터 각각 서약을 받고 임직을 공포한 후, 임직패와 임직증서 및 기념품을 수여했다.

임직식이 거행되는 동안 교역자와 성도들도 모두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도와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주 제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딤후 6:12)

1. 총회일자 : 2015년 5월 18일(월)
2. 등 록 : 5월 18일(월) 오전 11시
3. 개회예배 : 5월 18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18일(월) 오후 2시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2015년 4월 7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용 덕

총회원 초청 특별행사

본 교단 정책위원회와 은혜와진리교회가 귀하를 특별행사에 초청합니다.

- 일시 : 2015년 5월 25일(월) 오전 11시 ~ 오후 7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안양) 대성전 및 뮤지컬 공연장
- 행사 : 세미나, 기도회, 뮤지컬(휴거) 관람

- 참석신청 :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 신청대상 : 본 교단 목회자 및 사모
- 신청방법 : 소속교회, 소속지방회, 본인성함, 신분(목사, 전도사, 사모)을 기재하여 이메일(gntc3731@hanmail.net) 또는 휴대폰(010-4033-658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신청 선착순 500명으로 제한합니다.(식당 및 뮤지컬 관람 좌석수 관계)
- 오찬과 만찬을 제공합니다.
(식당 사정으로 오전 11시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식사가 제공됩니다.)
- 행사 후에 숙박이 필요한 분은 은혜와진리수양관에 숙소가 제공됩니다.

